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10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- 1. 호주 무역용 양 지표(NTLI)는 10/9 주간 1,153¢/kg로 5% 반등했고, 머튼 지표는 829¢/kg로 3% 올랐습니다.
- 2. 연휴로 양 출하가 15.6% 줄고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, 지난주 약세가 한 주 만에 뒤집혔습니다.
- 3. 뉴질랜드 육류업계는 미국의 추가 양고기 관세에 맞서기 위해 워싱턴에서 대응에 나섭니다. 호주산(15억 달러 규모)에 대한 미국 ITC 공청회도 11월에 열립니다.
- 4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 복섬)은 두당 NZ\$209로 1년 전보다 18% 높습니다.
- 5. 뉴질랜드의 식품·섬유 수출은 6월 결산 연도에 652억 뉴질랜드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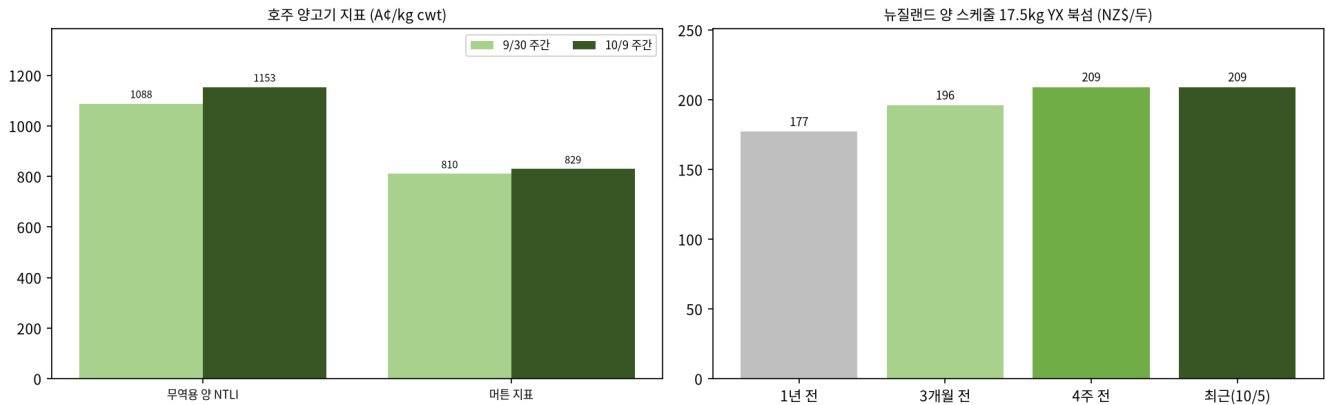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	1,153 A¢/kg cwt	전주 +5%	MLA 주간 시황
호주	머튼 지표 (10/9 주간)	829 A¢/kg cwt	전주 +3%	MLA 주간 시황
호주	NTLI (9/30 주간, ABARES)	1,088 A¢/kg cwt	전년 -8%	ABARES
호주	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	1,226 A¢/kg cwt	-	MLA 주간 시황
호주	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	1,329 A¢/kg cwt	-10¢	AuctionsPlus
호주	우옌 경매장 양 (10/9 보도)	A\$11~12/kg 지육	강세 유지	Ground News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복섬 (10/5)	NZ\$209/두	1년 전 177 대비 +18%	interest.co.nz
뉴질랜드	가공업체 양 스케줄 14.1~25kg (10/4 주)	NZ\$12.10/kg	변동 없음	Cabernet Foods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사항, [interest.co.nz](https://www.interest.co.nz)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1. MLA에 따르면 이번 주 양 출하는 132,260두로 15.6% 줄고 성양 출하는 14% 줄었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시장이 강해졌고 양·머튼 도축은 늘었습니다. ([MLA 주간 사항](#))
2. Mecardo는 양 공급이 다시 줄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해 전국 지표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(10/9). ([Mecardo](#))
3. 빅토리아주 우옌 경매장에서 새 시즌과 지난 시즌 양 모두 kg당 11~12달러(지육)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([Ground News](#))
4. 미국은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에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, ITC 공청회는 11월 예정입니다. ([Ground News](#))

뉴질랜드

1. 뉴질랜드 육류 수출업계는 미국의 추가 양고기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워싱턴에서 직접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(10/7 보도). ([Ground News/Farmers Weekly](#))
2. 6월 결산 연도 식품·섬유 수출은 652억 뉴질랜드달러로 8% 늘어 사상 최고였습니다. ([Xinhua](#))
3. Westpac은 양고기 수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 근처에 있고, 2027년까지 높게 유지되다 소폭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. ([Westpac Agri Bites](#))
4. Bidfood는 엘니뇨로 새 시즌 가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([Bidfood NZ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호주산: 지난주 약세가 공급 감소와 비 소식으로 한 주 만에 반등해, 단기 오퍼 인하 기대는 줄었습니다. 미국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향 물량이 아시아로 돌 수 있으니 11월 ITC 공청회 전후로 계약 시기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뉴질랜드산: 미국의 관세 위협이 뉴질랜드산까지 번지면 아시아향 공급이 늘 수 있지만, 지금은 스케줄이 전년 대비 18% 높아 강세 오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공통: 호주·뉴질랜드 모두 대미 관세 이슈가 4분기 가격의 최대 변수입니다.

한 줄 요약

호주산 양고기 지표는 공급 감소로 5% 반등했고, 미국의 호주·뉴질랜드산 관세 논의가 4분기 한국향 오퍼의 핵심 변수입니다.